

튀니지와 21세기 혁명



2011월 1월 14일, 북아프리카 튀니지를 20년 동안 통치했던 독재자 벤 알리 대통령이 쫓겨났다. 2010년 12월 한 가난한 대학 졸업생의 분신으로 시작된 투쟁이 혁명으로 발전한 것이었다. '21세기에 혁명은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통념을 깨고 혁명이 발생했다. 튀니지 사람들의 고민은 세계적 경제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 실업, 물가상승, 정부의 무대책 등등.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는 튀니지 혁명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일시 : 1월 28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 서울 명동 향린교회 3층 본당

주최 : <레프트21> 참가비 : 4천원 문의 : www.left21.com left21@left21.com 02-777-2972

연사 : 김용욱 <레프트21> 국제 문제 담당 기자

(중동, 중국, 라틴아메리카 등 국제 문제를 꾸준히 다뤄 왔다.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알렉스 캘리니코스, 책갈피), 《새로운 제국주의와 저항》(존 리즈, 책갈피),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인가?》(찰리 호어)를 번역하기도 했다.)

